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8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주희)

- 가고시마의 낙도 “도쿠노시마”를 아시나요?

2 가고시마의 국제교류

- 2025 년도 현비 유학생들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3 지사 관련 새 소식

- HIS JAPAN 야마노베 대표이사가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5 월 8 일)
- 가고시마현·장쑤성 교류 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5 월 19 일)

국제교류원의 칼럼

● 가고시마의 낙도 “도쿠노시마”를 아시나요?●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 주희(한국출신)-

가고시마현은 남북으로 600km 에 달하는 기다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본토 아래쪽으로 많은 매력적인 낙도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2021 년 아미미 오시마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도쿠노시마에 좋은 기회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도쿠노시마에 가기 전 주변 동료나 지인에게 도쿠노시마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 더 미지의 섬이었는데요, 가기 전 가고시마현 관광연맹의 홈페이지와 도쿠노시마의 관광연맹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취재 할 곳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 kagoshima-kankou.com

도쿠노시마 관광연맹 - tokunoshima-kanko.com

도쿠노시마의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하면 단연 소싸움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소싸움을 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소싸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까지 낯선 문화는 아닙니다. 이 인연으로 실제로 한국의 경북 청도군과 도쿠노시마의 3 초(도쿠노시마초, 이센초, 아마기초)는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도쿠노시마에 취재차 방문하던 날의 바로 전 주말에 도쿠노시마에서 소싸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주말의 개인 시간을 이용하여 도쿠노시마로 향했습니다.

이센초에 있는 나쿠사미관에 도착하자 입구 주변에 벌써 당일 소싸움에 출전하는 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쿠사미관은 돔 형태의 경기장으로 지붕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햇빛이 뜨거운 날에도 무리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또 경기 전 인상 깊었던 점은 전국 출산율 1 위인 도쿠노시마 답게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싸움은 언뜻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쿠노시마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도쿠노시마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도쿠노시마 전통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일 받은 소싸움 대진

소싸움이 시작되자 많은 관중들이 환호 속에 소가 입장하였습니다. 한마리가 먼저 입장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소가 입장하자마자 소싸움은 시작됩니다. 도쿠노시마 소싸움의 특징은 목줄을 하지 않고 세코라고 부르는 소의 주인이 옆에서 소가 흥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들은 뿔과 단단한 머리로 서로에게 돌진하며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뿔에 맞아 피가 나기도 하고 더러는 기싸움에 눌린 소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망간 소는 바로 패배가 됩니다.

이날 총 10 팀, 20 마리의 소가 소 싸움에 참여하였습니다. 개 중에 가장 긴 소싸움은 40 분을 넘겼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박력이 넘치는 소싸움을 관전하였습니다. 소싸움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소 주인과 관계자들이 우르르 경기장으로 들어와 “와이도! 와이도!!” 라고 외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소싸움을 직접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거대한 소들이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는 제 안에있는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소싸움도 직접 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굉장한 기세로 싸우기 시작한 소들

다음날 본격적으로 도쿠노시마의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도쿠노시마를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메루마가를 읽고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소개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쿠노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테마를 나누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관〉

- 무시로세

아마미군도에서는 보기 힘든 화강암 지형과 바다의 멋진 풍경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마치 명석(무시로)를 깬 것과 같은 풍경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시로세의 풍경

- 카나미 소철 터널

도쿠노시마에서는 전부터 집과 집, 밭과 밭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철을 심어 담처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소철들이 무성하게 자라 마치 터널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남국의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명승지>

- 이즈미시게 치요 옹의 상

출산율 1 위에 빛나는 도쿠노시마는 또 다른 타이틀이 있는데요. 바로 “장수의 섬” 도쿠노시마입니다. 비공식이긴하나 120 살까지 장수한 할아버지가 도쿠노시마 출신인데요. 그 동상을 세워 할아버지를 기리고 장수의 섬 도쿠노시마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방문하셔서 장수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즈미시게 치요 옹의 상

<역사 문화>

- 도쿠노시마쵸 향토 자료관

이곳에서는 도쿠노시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관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아주 흥미롭게 관람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쿠노시마의 고대부터 파란의 역사를 가진 근현대까지, 시간 순서대로 도쿠노시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도 방문 가능하답니다!

- 나쿠사미관 소싸움 자료관

소싸움을 볼 수 있는 나쿠사미관 건물 내에 소싸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관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와 전시물 등을 통해 소싸움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은 실내이므로 비가 오는 날에도 견학 가능합니다!

- 니시카와 주조장

가고시마의 가장 유명한 술이라하면 고구마소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가고시마의 낙도들에서는 흑당소주가 특색있는 소주로 꼽힙니다. 특이한 향이 나는 고구마소주와는 달리 흑당의 달달한 향이 나는 흑당소주는 일본 소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초심자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소주입니다.



도쿠노시마에서 생산되는 여러 소주

이 니시카와 주조장에서는 흑당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여러 종류의 흑당소주를 시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은 금물! 이므로 운전을 하시는 분은 마시고 싶어도 참아주세요! ㅎㅎ

<도쿠노시마의 자연>

- 세계문화유산 센터

2024 년 개관한 세계문화유산 센터는 도쿠노시마 고유의 자연 생태계에 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숲 속에 들어와있는 듯한 기분을 갖게하는 연출들이 도쿠노시마의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한 듯한 느



세계문화유산 센터 앞에서

김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미치노에키 도쿠노시마가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사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 하브관, 아마미 검은 멧토끼 관찰관

도쿠노시마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독특한 고유 생태계의 증거인 하브(아마미, 도쿠노시마 지역에 사는 뱀의 종류)와 아마미 검은 멧토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브관은 아



아마미 검은 멧토끼의 똥
허브 냄새가 나서 신기했습니다

마기초 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꼭 잠겨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아마미 검은 멧토끼 관찰관은 실물은 볼 수 없지만, 관찰 카메라가 있어 야행성인 검은 멧토끼가 밤새 관찰관 주변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멧토끼를 사랑하는 직원분이 해주기 때문에 검은 멧토끼에 대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남쪽에 위치한 섬이니만큼 아름다운 바다에서 다양한 바다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겨울에 가서 안타깝게도 바다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고래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혹등고래가 겨울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기 위해 도쿠노시마 근처 바다에 오는데요, 고래 투어에 참여하여 배를 타고 고래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운이 좋다면 육지에서조차 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4 계절 내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도쿠노시마에 놀러오세요!

가고시마의 국제교류

●2025 년도 현비 유학생들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타국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자제를 우리 현의 대학으로 초청하여 가고시마의 실태를 배우고 익혀 우리 현과 이주국의 긴밀화를 위해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비 유학생 초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 년도 현비 유학생으로서 4 월에 3 명의 유학생들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이들은 내년 2 월까지 11 개월 동안 가고시마에 거주하며 가고시마 대학에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1970 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5 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브라질에서 2 명, 페루에서 1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4 월 초 브라질과 페루에서 약 30 시간을 날아 가고시마 현에 도착한 3 명은 바로 대학 수업에 출석하여 약 11 개월 간의 가고시마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 명의 유학생들의 유학의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 고다마 브루노 게이고 씨(브라질)

앞으로 11 개월간 가고시마 대학에서 지역사회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브라질에 이주한 지 45 년 후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가고시마에 제가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던 가고시마의 추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비롯하여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시마의 축제나 전통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배우고 브라질에 돌아가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행사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배우고 그것을 참고하여 브라질에서도 축제를 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가고시마현의 여러분, 그리고 가고시마 현인회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쿠가와 구스타보 씨(브라질)**

처음뵙겠습니다! 후쿠가와 구스타보입니다. 작년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계 브라질인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조부모의 고향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오랫동안 일본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고향인 일본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참가했던 강연회 덕분에 증조부의 출신지인 가고시마 현인회에 가입하여 그 후 현비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하였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회는 Asebex 라는 일본에서 유학한 일본계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일본 유학생이나 장래 일본에서 유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 학생 생활이나 일본 문화의 정보를 알려주는 강연회입니다. 그곳에서 현인회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었고 증조부의 출신지가 가고시마였기 때문에 가고시마 현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인회 청년부의 멤버가 된 2024 년은 다양한 현인회 이벤트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규슈 블록 운동회와 일본 축제 입니다.

현비 유학생이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조부모의 고향에 가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나 전통을 배우고 일본에 남아 있는 친척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은 인생에서 한번 뿐인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 돌아간 뒤에는 이 유학에서 배운 것을 현인회나 일본계 커뮤니티에 전하여 다음에 올 후배들에게 이 경험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 **가와바타 폰세 케빈 미겔 씨(페루)**

일본에 가는 것을 제안 받았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제 가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선조의 땅에 대해 알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 번이나 일본에 방문하셨지만,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주한 후 일본에 한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고향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기회가 있다면 귀국하고 싶어하셨고 일본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편지를 주고 받고 계셨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지만 가고시마는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가보고 싶었는데..."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실제로 제가 일본의 땅을 걷는 것은 저에게 그저 여행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 세대가 이어서 꿈꾸던 꿈의 실현이며 특히 제 아버지의 꿈을 제가 실현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이전보다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살려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아버지가 꿈꾸시던 할머니의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유학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엔 이번 유학에서 얻은 많은 경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3 명의 유학생의 첫 가고시마 생활이지만 11 개월간 공부 뿐만이 아닌 조부모의 출신지 방문이나 친척과 교류 등을 통해 유의미한 가고시마 생활을 보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시마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HIS JAPAN 야마노베 대표이사가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5 월 8 일) ●

HIS JAPAN 야마노베 대표이사가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주)HIS 와 인바운드 관광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연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항공과의 3자 회담을 진행하여 베트남 정기편 취항을 위한 연계협정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총 3 회에 걸쳐 하노이-가고시마 전세기를 취항하여 상호 유객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연계협정에 근거하여 양 쪽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많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가고시마현에 방문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모션에 힘쓰고, 베트남과의 정기편 취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일 이야기 나누는 모습

기념촬영 ▶



●가고시마현 · 장쑤성 교류협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5 월 19 일) ●

중국 장쑤성의 팡웨이 부성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가고시마를 방문하여 가고시마현 · 장쑤성 교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교류는 1985 년에 시작되어 올해 40 년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환경, 복지 각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고령화, 의료, 환경 등의 문제는 가고시마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 문제이며 가고시마현과 장쑤성의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고 또한 양 현, 성의 연계 강화에 의해 앞으로도 우호 관계의 발전에 힘쓰고 싶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팡웨이 부성장은 가고시마 특산품인 소주나 와규의 우수함과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 청소년과 스포츠를 통한 인적교류 등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장쑤성과 긴 시간 이어온 우호교류를 더욱 강화시키고 앞으로도 양 현, 성의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팡웨이 부성장과 기념품 교환



▲단체 기념촬영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개구리의 울음 소리가 울려퍼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

개구리는 일본어로는 “케로 케로”라고 우는데요,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우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어는 “ribbit ribbit”, 한국어는 “개굴 개굴”, 중국어는 “呱呱(과 과)” 라고 운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나라, 지역에 따라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재밌는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의 매력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